

# 자원봉사 현장에서 바라본 시민의 변화

글 · 김건희 aspirin1202@naver.com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억압만 난무하던 시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그리고 활동가들의 희생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현재의 민주주의가 일구어졌다. 지금도 뭔가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목숨을 걸만큼 절박한 일은 많지 않다. 시민들도 예전같지 않고 심드렁해진 이 포스트모던한 시대, 다같이 푹푹 뭉쳐서 공격해야할 대상도 사라져버렸다. 시민활동가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스며들어 각자의 꿈을 꾸고 있는 지금, 나는 볼런티어21에서 자원봉사로 사람들이 연대하고 함께 지역사회를 일구어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

자원봉사 혹은 자원활동 등 몇몇 이름으로 지칭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 자발적인 활동은 국가권력의 강제나 시장경제의 이윤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동기에서 출발한다. 자원봉사는 일차적으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자원봉사 수요자를 돕는다. 이와 더불어 참여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다. 누구나 좋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의 변화, 시민의식의 성장은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자원봉사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찾아보고자, 자원봉사 현장의 다양한 시민들과 그들의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을 반추해보았다. 요즘 같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 바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계기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가?

20세 이상 성인 10명 중 2명 만이 1년에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도, 단체의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변의 몇몇 지인들을 살펴보니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씩 갖는 쉬는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하기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2명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 2명의 시민은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걸까?

2008년도 볼런티어21에서 실시한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전체 자원봉사자 중 가정주부가 30.4%, 자영업자가 20.3%의 비율을 차지한다.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40대 주부와 50대의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2,30대의 젊은이들이지만 막상 지역으로 나와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자원봉사 하러 온 4,5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계기도 대부분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인물들의 권유(34.9%)로 혹은 직장이나 동아리 등 소속된 단체를 통해(34.2%)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전체 자원봉사자 중 23.4%이다.

실제로 내가 자원봉사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은퇴한 어르신들이 많다.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동기보다 '자아성취나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위한 경험 쌓기' 등 개인적 차원의 동기가 대부분이었다.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변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렇듯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 혹은 '소속된 단체를 통해서'가 많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동기보다는, 개인적인 동기가 대세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그들의 동기는 진화한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87.7%)',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87.7%)'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활동을 시작한 시민들은 자원봉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등 의식의 변화를 보인다. 그저 주변의 권유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의 사회적 의미를 깨닫고 그 활동을 지속할 이유

를 새롭게 찾게 된 것이 아닐까. 자원봉사는 시민들을 변화시킨다.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보자.

### 자원봉사로 이웃의 삶과 관계맺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요즘, 물질적 기부 뿐 아니라 임직원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오지만 지속적인 활동으로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한 자원봉사이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보다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해 말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만난 모기업의 A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해오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 아동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로 시작한 활동이지만, 자신의 활동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마음이 우러났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한다.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의 삶을 살피게 되었고 그 삶이 나와 관계 맺고 있다는 인식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또 다시 참가했다.

### 자원봉사로 세상과 관계맺기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 동기요인’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타인지향적이고 누군가를 돌보는 성격이 강해 ‘이타적 동기’로 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등 자아실현의 ‘도구적 동기’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주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여가를 보내기 위해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자아성취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

현재 자원봉사강사로 활동중인 B씨도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었던 주부였다. 종교적 이유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며 왕성한 활동을 했다. 자원봉사 경력이 쌓이면서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깨닫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자원봉사를 위한 여러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자원봉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민간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그는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에 나왔고 우리 지역사회를 가꾸고 있다.

### 자원봉사 수요자에서 자원봉사 리더로

○○시민대학교에서 문해교육을 받던 주부 C씨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앞이 안보일 정도로 떨렸던 첫 수업이 끝나고 한 번 두 번, 수업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이 생기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교장까지 하게 되었다. 용기가 없었던 그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자원봉사자들이 그를 알아봐주고 격려해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육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을 또 다른 자원봉사교사로 키워내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 학생에서 교사로 '역할'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까지 곁에 있는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동네이웃들을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자원봉사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웃들이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기쁘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더라. 노인급식시설에서 봉사를 했다고 자원봉사카드를 보여주면서 너무 좋더라, 하는데 내가 바로 그 마음이야! 했다.”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은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며 성장해나간다. 또한 스스로의 성장과정을 반추하며 또 다른 참여자를 이끌어내고 그가 성장하도록 돕는다.

비자원봉사자들을 무대로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설득과 교육, 캠페인이 아니라 지금 함께 활동하는 시민들의 성장을 통해 그들의 지인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 함께 풀어가야 할 실타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지역을 가꿔가고 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위의 사례와 같이 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경험을 하고 성장해나간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지만 곁에서 자극을 주는 사람도 없고 교육도 제공받지 못한 채 지역의 이런저런 행사에 동원되거나, 활동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자원봉사를 통해 좋은 경험을 하고 잠깐의 시간을 뽐듯하게 보냈지만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만 개발되고 그것이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활동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